

## 백양로

### 「학력사항」

- 배문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대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경력사항」

-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국장
- 금융감독원 검찰실 국장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 사법연수원 교수
- 대구지검 영덕지청 지청장
- 부산지검 부장검사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 제27회(1985년) 사법시험 합격



조 두 영

## I. 처음에

합격기 청탁을 받았을 때에 망설이지 않은 것은 합격기가 서울법대생들의 전유물이 되다 시피 해서 저와 같이 많은 합격자가 나오지 못한 연대생이나 타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나도 그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앞섰던 경험으로 합격기를 써서 용기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 준비기간은 대강 5년이지만 3차에 탈락했던 경험, 그 이듬해에는 1차에서마저 떨어지고, 27회에 1,2차 동시 합격했었으므로 저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나, 동시 합격을 바라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쓴다.

## II. 제1차시험에 합격하기까지

처음 시험 준비를 시작한 것은 대학 1년 겨울방학 때였는데 친구 원호, 영우와 전라·경상도 일대를 8일에 걸쳐 여행을 하고 서울에 올라온 1981년 1월 11일부터 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책을 보기 시작했다. 고시준비생들이 흔히 그러하듯 나 역시 관운직 민법, 김철수 헌법을 읽기 시작했고, 경제원론을 보던 중에 2학년에 진급했다. 1학년 때 휴교가 있어서 예기치 못한 초여름을 풍미하겠다고 잠시 방황을 했으나, 2학년 1학기의 대부분은 전공과목외에 민법 책만을 보고 여름방학을 맞이했는데 그때 study group을 조직했다. 결국 study group 6명 중에서 5명이 사법시험에 붙고 1명이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기는 했지만 그 당시로는 서로 모르는 사항이 많아 결론 없는 투쟁만 했지 큰 소득은 없었다. 그해 여름방학은 study group의 공부와 병존하면서 제법 공부를 많이 해서 선선한 가을과 개강을 임할 때는 매우 자신이 넘쳐 있었으나, 자신이 있는 만큼 과연 나도 될 것이냐는 불안감과 나의 능력에 상당히 회의적이었다.

어쨌든 여름내 땀내며 공부하면 가을에 공부가 안된다고들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우려점이 될 수 있겠으나 학부시절에는 체력적으로 능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학년 2학기도 체력을 바탕으로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었다. 적어도 기본 3법은 2학년 때까지는 끝내야 된다는 목표를 세웠기에 2학년 겨울방학 때 비로소 1차 준비를 시작했는데 24회 시험이 6월로 연기되면서 긴장이 풀렸으나, 학교모의고사에 대비해 공부를 하여 모의고사 성적은 안 좋았지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떨칠 수 있었다.

## III. 제2차시험의 시작

모의고사 시험 중 경제학과 민법이 각 50점씩 나온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란 생각이 들어 민법을 3학년 1학기 초에 한번 더 읽었다(이때까지 민법은 6회독을 했는데 이후에는 교과서는 보지 않았다). 5월 학교강의를 거의 전부 빠지면서 1차 준비에 투자하고 명지고등학교에서 치른 24회 1차는 어설픈데 봤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결과는 평균 1점차로 합격이었다. 객관식 시험은 지금도 확신하지만 문제집을 한번이라도 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당시에도 독일어가 고득점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니므로 쉽게 오산하여 실패하지 말길 바란다.

동국대에서 치른 2차는 4일간 아버님 회사가 퇴계로에 있는 관계로 출근하다시피 했는데 4과목이 과락이었다. 그러나 실망하기 보단 오히려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칸을 메꾸는 연습만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 IV. 제2차시험의 실패와 마음의 동요

9월 들어 민소와 행정법을 보기 시작했다. 놀라운 집중력과 시간투자로 민소를 5회독하고 거의 골격을 잡아넣을 수 있었다. 본래 속독을 하는지라 처음 5회독까지는 무심코 읽었

지만 잘 모르겠어서 마지막 6회독 켜는 정독으로 해서 그때 해안이 됨을 느꼈고 민소법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되었다. 그러나 행정법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 원인이 내가 선택하였던 기본서가 산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완전하게 2회독을 하고 곧이어 형총을 장준철 문제집에 단권화하고서 겨울방학이 되었다. 3학년 겨울방학은 도서관에 새벽에 나와 23시에 집에 들어가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해 겨울 백양로를 외로운 Reisender처럼 별보며 등교하고 별보며 하교하던 추억이 새롭다.

방학이 시작되어 내내 전 과목을 단권화하여 최종으로 국민윤리가 정리됐을 때는 봄이 완연한 4월 중순이었다. 25회 2차 시험이 7월인지라 3개월 남은 기간을 읽기 시작하려는 데 단권화만 잘되었지 공부는 부진했다. 그 이후 시험 전 한 달까지 엉망으로 지내고 보니 걱정이 되어 법대 전용도서관인 법현대에 들어가 차분히 읽기 시작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어느 합격기에서 영감을 얻어 줄친 부분만을 읽어 나갔고 그것이 주효하여 한 달 동안 3회독(전 과목)이 가능했고 시험 10일쯤 전에는 이쯤이면 응시하면 하다고 느껴졌다. 각 식사 후 30분씩 정도를 목차외우는 시간을 만들어 거의 외웠으므로 시험에 대한 자신감만은 합격이라고 자위하고 웅했다. 본래 줄친 부분만 읽는 것은 상당히 모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 면에 나오는 교과서의 모든 내용이 읽을 만한 동일한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진 않았다. 또한 단권화할 경우 책이 비대해지는 것도 고려하면 반드시 무모한 방법은 아니었고 27회 사법시험의 1,2차 동시합격에서도 그런 요령이 크게 성공했다. 물론 중요한 부분에 하선(下線)이 없고 전반적으로 이해화 암기가 없다면 큰일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하여 시험보기 4일전에는 한 시간에 100페이지 이상씩을 읽고 지나갔으므로 시험 준비는 그럴 듯하게 되어 갔다.

동국대에서 치른 25회 2차 시험은 둘째 날까지는 잘 치르었는데 세째 날 민법의 「채권의 보전방법」을 강제이행을 쓰는 것이라 착각하고 신나게 쓰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전혀 다른 것을 자신 있게 썼음을 알고 망연자실해서 포기하려 했으나, 같이 시험을 보던 정일(연수원 15기)이가 격려하여, 허탈한 가운데 민소법을 치르고 마지막 날은 공부를 앓고 형법·형소법을 대강 끄적이다가 나왔다. 많은 합격기가 채점은 교수가 한다고들하더니 걱정했던 민법이 44점으로 과락을 면하고 2차 시험에 이상하게 합격이 되었다. 그러나, 3차 면접까지 불안불안하더니만 석차 292등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의 정신적 충격은 둘째 치고 주위의 아는 이에게 부끄럽기만 했다. 그때 나를 위로하던 친구들의 몇몇은 모습들이 기억난다. 3차 발표가 10월말에 났고 불합격을 확인한 수 바로 한 달 뒤에 있던 대학원입학 시험 준비를 했다. 대학원시험을 그런대로 끝내고 나니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시 3차 탈락의 후유증이 재발하여 크게 방황했는데 친구 경제, 성은이가 같이 지내줌으로써 다음해 다시 1차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본인의 사견으로는 사법시험 3차 탈락이 사실상 2차 시험의 석차로 탈락시킨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고 보면 그 탈락자들은, 3차가 요식적인 신언서판(身言書判)의 제도가 아님을 보이기 위한 희생양으로 3차 면접은 시험으로서 의미가 없고, 그렇다하여 이틀이란 면접시험 기간중단 몇 십분 만에 그 사람의 됬됨이를 알 수 없는 게 현저한 사실인

바에야, 3차 시험에서 불합격시키는 불합리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우려된다. 또 그것이 불가하다면 1차 면제기회를 소모한 자들에게는 차회의 1차 시험만이라도 면제하여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3차에 탈락하여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은 시험에 합격했었다는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 그 불합격을 기정사실화하여 마음의 동요를 미연에 방지하길 당부한다.

## V. 새로운 전환기

나의 고시 생활은 이때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지금까지의 고답적인 암기위주의 공부 방식과 속독을 버리고 이해와 정독으로 공부 방법을 바꾸었다. 그래서선지 25회 시험에 동기 5명이 시험에 합격해 나갔어도 공부가 잘된다는 생각으로 있을만했다.

어느 합격기에서 한 노장분이 고시준비생과 이성과의 유기적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길 「고시」 치르이기 준비 전부터 사귀던 여자가 있으면 헤어지지 말고, 없었다면 고시 준비기간 중에 엮지 말라라고 쓰셨는데, 애석히도 후자의 사태가 내게 발발하여 정신적 fever로 무척 고민했다(지나고나니 별스런것도 아니었는데). 한편 그런 사랑놀이 중에도 이해와 암기의 병존방법으로 실력은 일취월장하였다. 공부와의 교묘한 타협으로 자신을 합리화해서 충수(연수원 17기), 원이, 성은이 경재와 당구와 맥주를, 재충전을 위한 휴식으로 즐기기도 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원 강의도 충실히 듣고 멀리서만 볼 때는 별로라는 버릇없는 판단을 내렸던 교수님들을 막상 가까이 대하게 되니 그분들의 실력 뿐 아니라 인품 앞에 내 자신의 소인됨을 느끼고 크게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특히 대학원 4학기 중 3학기동안 수강한 민사소송법강의의 김홍규 교수님께 크게 감명을 받았고, Jauering의 저서 「ZPR」강의는 재래적인 국내 민소법교과서의 관점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었고, 당시 박사과정중이고 현재는 원광대 교수인 피 정현선배님과 대화와 놀라운 독일어 독해실력에 감탄해 하며 많은 격려에 큰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매력적이기만 하던 대학원 강의의 몰두도 26회 1차의 원서를 내고서는 결강하며 시험 준비에 임했으나 지나친 자만과 실력부족으로 떨어졌다. 그해 10월 도서관의 아는 분들 보기가 민망스러워 떨어져 삭아 없어지는 낙엽같이 다시 법현대관에 들어갔다.

## VI. 나태한 생활과 자만

26회의 1차 패인을 나름대로 분석하면 나태한 생활·자만·신경쓰임의 낭비가 많았고, 특히 시험 준비가 소홀했다고 판단하고 기본3법의 문제집을 각 한권씩 구입해서 문제를 풀었다. 27회 시험 전 일주일간은 매우 착잡하기만 했다. 비가 오는 1차 시험장은 어둡기까지 해 심판했고 내 나이도 노장에 들 정도로 재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그러나 시험은 대과없이 치르이기 때문에 시험장을 나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바로 다음날부터 2차 준비를 시작했고, 3일 뒤에 1차 기출문제가 고시계에 나와서 맞추어 본 결과 안정권에 든다고 다짐했으나, 도서관에 가기만 하면 입 가벼운 자들의 커트라인에 대한 근거 없는 낭설에, 그 허위점을 알

면서도 나약한 나머지 불안해하였다. 1, 2차 동시합격의 비결 중 하나는 그런 유연비어 중에 도 굳건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시험 후 55일정도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3회독을 계획하고 시간의 낭비를 막고자 하선부분만을 중심으로 읽었다. 25회째 본 이후 전혀 본적이 없던 국민윤리는 몹시 걱정되어 별도로 하루 2시간씩 보기는 했지만 전부를 읽을 수 없어서 전통사상·공산주의·민주주의 부분만을 보았고, 4학년 때 단권화한 국민윤리는 웬지 보기가 싫어 멀리하고 우태희 편지를 보았다. 그러나 1차합격자 발표까지의 많은 시간을 신문식씨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나태하게 보내는 적이 많았다. 1차합격자 발표 날은 26회 때의 전과도 있어 몹시 초조하여 후배와 당구를 치고 맥주를 마시며 학교에 전화를 걸어 확인한 후에야 다시 도서관에 올라 공부를 할 수 있었다.

## Ⅶ. 4일간의 사투

시험 전 보름!

3회독의 계획이 예상대로 진척되지 않아 계획을 변경하여 시험과목의 역순으로 1회독을 마지막 3일과 만나질 전까지 읽고, 다시 그 시험 전 3일과 만나질을 각 1회독하기로 했는데 시험 전 4일로 제하지 않은 것은 첫날의 시험과목의 분량이 적을 뿐 아니라 그 바로 전날은 시험기간 증과는 달리 하루를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체력의 소모를 막고자 새벽에 형을 깨워 형의 자동차로 등교하고, 저녁에도 형이 다시 집에 태워 주었다. 아침을 먹지 못할 만큼 일찍 집에서 나왔으므로 학생식당에서 이른 아침에 파는 컵라면을 먹었고, 낮잠이 없는 체질이라 피곤하긴 했지만 오수를 즐기지 않고, 또한 친구들과의 잡담도 피하고 도서관구석에서 식사와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고는 책장넘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결과 보름간의 준비는 계획 이상으로 빨리 진행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다급함을 알다니! 그 기간 중은 식사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고기가 있는 음식은 피했고 아침식사가 부실했기에 점심을 넉넉히 먹었다. 시간확보를 위해서 잠을 줄여볼까도 했으나, 원래 잠이 많아 포기하고 계획대로라면 보름동안 전 과목 2회독(이때는 이라기보단 screen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다. 이런 계획대로 법 과목은 가능했지만 국민윤리는 시험 날까지 큰 골칫거리였다. 하루 1~2시간씩만 할애해 나갔으나 법과목과는 달리 확실한 실력을 감지할 수 없었으므로 24, 25회 시험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데에 신념만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던 중에 신경이 날카로운 관계로 시험 5일전에 나의 과실로 친구와 크게 다투고서 계획에서 6시간-시험 보름 전에 계획을 설정할 때 6,6.5시간으로 수분하여 계획을 세웠으므로-의 손실을 보고 시험 3일전에는 그렇게도 식사에 신경을 기울였건만 물냉면을 먹고 배탈이 나서 10여 시간을 약을 먹고 누워 자야만 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험 하루 전에는 원기를 되찾아 첫날 시험과목인 윤리와 헌법을 최종정리하고 잠을 조금 자기 위해 일찍 귀가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별 일 없었다는 듯이, 변함없을 도서관을 토요일에 볼 것을 다짐하며...

## Ⅷ. 진인사대천명

시험기간 4일은 모두가 그러하듯 고통이었다. 유난히 더웠던 1985년은 더욱 그랬던 것 같다. 단국대 시험장은 오전에는 그런대로 선선했으나 오후는 무척 더웠고 비도 와서 습도가 높아 땀이 나 답안지에 젖으므로 수건을 받치고 필기했다. 식사는 소화하기 쉬운 반찬으로 하고 식사량도 평소의 1/3로 했다. 또한 평소에 복용치 않던 비타민과 소화제는 시험보름 전부터 복용해 왔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갈 때도 책을 들고 다니며 읽었다. 점심식사 두 시간동안 복도에 서서, 계단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았는데 충분히 읽고 시간이 남았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차회에 합격하고자 하는지 답답하는 응시생들이 부담스러웠고 책상이 바로 벽에 붙어 있어 덩기까지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잠은, 4일간 세면서 공부했다는 분도 보긴 했으나, 나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머리가 맑지 못할 것 같아서 아무리 늦어도 밤 2시를 넘어까지 책을 보진 않았다. 그러므로 두시까지 다음날 오후과목 전부와 오전 과목 1/2을 보고 아침 6시에 일어나 그 나머지 반을 8시까지 보았다. 단지, 시험 마지막 날은 대부분의 합격자가 기진맥진했노라고 합격기에 쓴 것이 생각나 밤 1시에 잤고, 또한 무더위로 땀이나 끈끈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밤 11시쯤에 반드시 샤워를 했다(샤워하는 데는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났다).

시험은 첫날의 국민윤리가 당황케 하였으나 그 외에는 무사히 치르었고, 집에 와서 채점을 해 보았는데 실제 성적보다는 박하게 예상했었다. 답안지 작성은 초안을 잡는데 10분, 큰 문제 45~50분, 작은 문제 각 20~30분 정도로 시간안배를 했다. 시험종이 올인 뒤(오후 시간에 특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법전·답안지 제출하는 번거롭고 시끄러운 과정이 싫었으므로 매시간 5분정도 일찍내고 나왔다. 원래 속필이라 답안지는 거의 열장을 채웠다(성적은 윤이 65, 헌법 58, 행정법 64, 상법 50, 민법 60, 민소 45, 형법 56, 형소 50, 석차 12). 석차는 그런대로 높게 나왔으나 시험점수는 기대 이하였다.

사법시험정원을 늘리라는 유일한 주장자인 교수님들은 채점을 지나치게 박하게 함으로써(24, 26, 27회가 특히) 시험정원 축소 주장자들의 강력한 정원 감소 근거인 합격자의 질적 저하라는 주장에 불이익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됨은 애석한 일이다. 합격점이 내려간 것은 질적 저하가 이유가 아니라 채점이 까다롭기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고 28회 시험에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사족이지만 합격후의 연수원에 들어오고 느낀 것은, 300명중 150명만이 임명대상이기에 치열한 공부의 경쟁이 있는데, 사법시험성적이 그 반을 차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고득점 합격을 권하지만 조금 무리한 부탁인 것 같다(나 자신만 해도 3차 불합격 때 292등으로라도 불기만 했으면 하고 바랬었으므로).

## IX. 마치면서

2차 합격자 사정회가 있던 날의 새벽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침 10시에 일어나 고 시계에 다이얼을 돌려보니 오후 4시쯤 안다고 했다. 처량히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창가에 기대어 불합격했을 때는 다시 1년을 어떤 식으로 넘길까를 고민하다가 소설책을 읽고 있는데 얼마쯤 지났을까 갑자기 어머님이 큰 소리로 나를 부르시기에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는가 싶어 달려 나가는데 합격이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아버님이 먼저 전화를 해주신 것이다. 연이어 선배에게 전화가 와서 학교에까지 가 명단의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장신선배님의 약수를 받고 꺾외권 선배님이 붙여 주는 담배를 깊이 빨고 나서야 안도감을 느꼈다.

3차 시험은 그 준비기간인 한 달 동안 별다른 대책은 없었고 형법각론을 조금 읽고서 갔다. 27회에서도 3차 탈락한 사람이 14명씩이나 되는데, 그분들 특히 상대형의 조속한 고득점 합격을 기원한다.